

# “광주이주인권센터 설립...통합관리해야”

### 광주인권사무소·전남대, 인권개선 포럼

### 김남진 교수, 불법 체류자 위한 조례 제정 등 건의

광주지역 이주민들에 관한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광주시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 2013~2014년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했지만 40억원에 달하는 건립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운영형 광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이주인권포럼’을 열고 광주지역 이주민 인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남진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시 이주민 인권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에서 광주시 이주민정책의 문제점으로 ‘이주민 인권정책의 통합가능 부족’을 지적했다. 이주민 인권정책이나 법령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주인권교육 부실’, ‘다문화가족에 편중된 이주민정책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신청자의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주인권센터 설립’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해 이주민 인권법률상담, 실태조사 및 구제, 연구 및 교육, 상담운영, 정

책개발 및 법령개선 등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5개 구청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전문성, 영세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센터는 통합 기능과 함께 단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가 외국인 인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미등록 체류자(불법 체류자)까지 확대, 광주시 외국인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한정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 2013~2014년 협의회 구성과 공청회를 통해 광산구 우산동에 40억원을 들여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건립비와 연간 6억~7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건립을 중단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분야 14개의 이주민 사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진행·점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인권센터 설립과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여대 이형하 교수는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바스무쿨 유니버설 문화원장은 “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07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2년 2만명을 돌파했고, 2013년 2만2291명, 2014년 2만4466명, 지난해 2만653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불량 차선분리대 설치 업자·공무원 등 적발

### 광주시 “市도 피해...조달청 책임”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차선분리대를 수년간 도로에 설치한 제조·설치업자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규격에 미달한 차선분리대를 설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차선분리대 설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10명은 자체 징계를 통보했다.

A씨 등 업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규격에 맞지 않고 불량한 재질의 차선분리대(12억원 상당)를 광주·전남 도로 58개소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정상 업체로 판단하고 불량 제품을 검사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시설물이 쉽게 파손되더라도 문제 의식 없이 예산을 들여 교체를 반복해 열세를 낳았다”며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감독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차선분리대 품질 관리는 조달청 고유 업무로 조달청에서 등록 제품의 재질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대로 검사했어야 한다. 오히려 시가 피해를 봤다”며 “공무원들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화물연대 투쟁 결의대회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역파업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남문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광주 윤림중 옹벽 등 공공시설물 곳곳 붕괴 위험

### 광주 1곳·전남 7곳 안전 ‘D등급’

학교와 병원, 경로당 등 광주·전남지역 시설물 곳곳에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지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남 7곳, 광주 1곳의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을 받았다.

광주 윤림중학교 옹벽은 지난해 9월 D

등급과 함께 ‘전면사용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지난해 9~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도 내년에야 보강공사를 시작해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무안군 망월 1·3·4·5 배수통문(하천),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로2호 저수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박포부두도 D등급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남 13곳, 광주 5곳의 시설물이 불량(D등급)과 미흡(D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 경로당 1곳, 광산구 봉정3교 교량 1곳, 여수시 옹벽 1곳·여수시 절토사면 2곳·두표교 1곳, 장성군 경로당 옹벽 1곳, 광양시 옹벽 1곳, 강진군 교량 1곳 등 모두 9곳이 보강 공사가 필요한 불량 판정을 받았다. /김경민기자 kki@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8    해질 16:54  
해짐 17:59    맑음 04:02

#### 새벽 한때 안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6	보성	맑음	10/23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4/25
여수	맑음	16/23	영광	맑음	9/25
나주	맑음	9/26	진도	맑음	11/24
완도	맑음	15/23	진주	맑음	10/25
구례	맑음	10/25	군산	맑음	10/24
강진	맑음	12/24	남원	맑음	8/25
해남	맑음	11/24	축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9/25			

#### 비다 날씨

지역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면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49	00:12	18:04	12:34
여수	01:23	13:30	07:32	19:57

####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13/26	15/19	16/23	13/23	11/23	12/24	12/24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17~18일 해수면 높이 역대 최고

### 진도 4.3m, 완도·고흥 4m, 여수 3.7m...침수·범람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해수면의 높이와 조차(밀물 때와 썰물 때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지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차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다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한다. 지구와 달 또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세 천체가 일직선 상에 위치할수록 조석 차가 커진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7~18일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에 근접하고 달, 지구, 태양이 거의 일직선 상에 놓여서 기조력(달, 태양과 같은 천체가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올해 조차가 연중 최대로 높아졌던 백승사리(8월 19~20일) 기간보다 10cm 더 높아지고, 조차는 인천(9.9m), 평택(10.1m), 진도(4.3m), 완도(4.0m), 고흥(4.0m), 여수(3.7m) 등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진도·완도 등 남해안 서부는 18일,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 동부는 17일 조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조차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지만, 밀물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 순식간에 바다물이 고립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연합뉴스

## 광주교육청, 남암학원 임원승인 취소 처분

### 채용비리 연루 3명

교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남암학원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채용 비리에 연루된 남암학원 차모(78) 법인 이사장과 차모(66) 법인 이사 등 3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교사 채용을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도 남암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확인했었다. 교육청은 아울러 오는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남암학원에 임의 이사 3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기로 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g** (250g 기준)

**가볍다. 편하다!!**

ADD FG2

방수    친환경 식물 성분 90%

- 방수 탁월
-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 100% 국내 자체 생산
-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

•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보다 많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글아이드    검색

협진ECS http://www.hjecs.com    이글아이드 http://www.eagleeyed.co.kr    인천골프백화점 http://www.icgolf.kr  
골프용품 전문기업    초경량 항공소재 골프화    인천 최대 골프종합매장